공동체 소식

연중 제3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위령성월 안내

- 위령성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성월입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친지, 은인들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는 성월입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해 드릴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고해성사와 미사 영성체 그리고 묘지방문으로 전대사를 받아 돌아가신 분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평신도주일 안내

- 11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 강론시간 : 평협회장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및 Thanksgiving Day 안내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식사 후 평신도 협의회 있습니다.
- 20일(화)~22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그리스도왕 대축일 안내

- 25일(일)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교회력으로 나해(B)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 교무금 완납해 주십시오.
- 신앙생활 봉헌서와 안내서를 받으시고 가족이 함께 상의하시어 대림 3주까지 "성당봉헌용"을 봉헌해 주십시오

▣ 복사단 모임 안내

- 25일(일) 미사와 식사 후 복사단 모임 있습니다.

▣ 전례 봉사자 모집 안내

- 독서, 해설, 복사 전례 봉사자 모집합니다.
-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애찬 봉사자 모집

- 매 주일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신청은 전례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 기간: 10월 28일 - 11월 11일, 가격: $60
- 평일 미사 때 매일미사에 있는 영성체송을 합니다.
- 미사에 참례전 가정에서 기도문과 독서, 복음말씀을 읽어 봅시다.

▣ 한인회 기금 조성을 위한 일일 식당 안내

- 11월 11일(일) 오후 3시~8시
- 1인 $15(4세이하 무료)
- 게시판 공문 참조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62	210	504	68
차 주	41	211	169	232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문호진(안토니오)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차 주	정예찬(미카엘)	차민서(임마누엘) 김정훈(로베르또)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한인회 일일식당
차 주	8조: 김명희, 박계숙, 박동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띠노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 떠돌이들의 피난처, 억눌린 이들의 정의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불쌍한 이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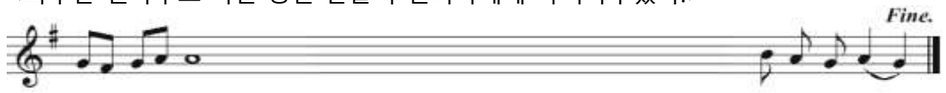
그림 묵상

하느님께 올리는 헌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닢에서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하늘나라에 쌓일 때마다 수호천사는 기쁘게 전달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7,10-16
<과부는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주었다.>

화 답 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9,24-28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8-44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생명의 말씀

하느님 앞으로 떼어낸 그것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은총의 샘이 됩니다

한강성당은 지역 전체가 아파트촌입니다. 16년 전 본당신부로 부임을 받은 저는 5년 동안 사목을 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새벽 미사를 끝내고 몇몇 사목 위원 형제들과 식사를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는 자그마한 재래시장에 위치한 소박한 식당입니다. 성당에서 걸어서 약 10분 걸립니다. 식당 주인은 개신교 신자로 60세가 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어느덧 저와 주인 아주머니와 친숙한 사이가 되었는데, 한 번은 한 형제로부터 음식값을 건네받은 돈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오늘 첫 번째로 번 돈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으로 떼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순간 저의 마음은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옆 커다란 성당의 본당신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때 아주머니의 모습과 말씀은 때때로 내 안에서 울림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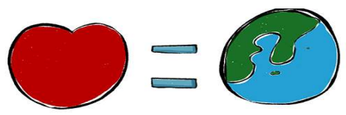
첫 번째로 번 돈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으로 떼어 놓은 돈, 사실 이 돈은 일상적인 돈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속한 성스러운 돈입니다. 이 성스러운 돈은 아주머니께서 일하시는 그날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희망도 그만큼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떼어 놓은 그만큼 자신이 하느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떼어낸 성스러운 돈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합니다. 이때 하느님 앞으로 떼어낸 성스러운 그것(돈)은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은총의 샘이 되어줍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어떠한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뿌리는 내 삶 어디엔가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은총의 샘이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자신임을 느끼기에, 선한 마음으로 떼어낸 나의 재물, 시간, 재능, 나 자신의 어떤 것들은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으로 은총의 샘이 됩니다. 이 은총의 샘은 언젠가 또다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희망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과부인 그녀는 궁핍한 가운데 생활비 전체를 봉헌합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떼어놓은 성스러운 삶 자체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늘나라 삶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하느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은총의 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만큼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하느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사랑은 전부
전부는 사랑
남김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마르 12,4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하느님과 외할아버지

저는 외할아버지를 유난히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늘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을 때 저는 13살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스케이트 선수로,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기를 나갈 때면 외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많이 응원해줬지만 이상하게도 외할아버지의 응원은 시합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남아 제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때까지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외할아버지는 아무리 먼 외국이라고 해도 매 경기마다 경기장에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었습니다. 19살에 참가한 첫 올림픽은 부담감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과 아이스 링크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은 저를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밴쿠버 올림픽은 저에게 큰 경험이었고 하느님의 선물의 시작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몸을 풀면서, 저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외할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할아버지가 경기하는 저를 지켜주실 것 같았고,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치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외할아버지와 마음속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도를 하며 눈물도 흘리곤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언제나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무언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자신 있을 수 없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무언가를 바라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편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편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든든하고 따스함을 느끼는 마음의 평화를 주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시는 외할아버지를 만나려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참 많이 보고 싶네요....

박승희 리디아
前 쇼트트랙·스피스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교리상식

독성죄가 뭐지요?

「가톨릭대사전」에는 독성이란, 거룩한 것을 의식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로 경신덕에 반反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성은 사람에 대한 독성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하거나 정당한 이유나 고위성직자의 허락 없이 세속 법정에 고소하는 행위입니다. 장소에 대한 독성이란 축성 또는 축복된 성당과 교회묘지에서 살인, 상해, 음행, 상행위, 약탈, 파괴, 방화, 동식물 방치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 물건에 대한 독성은 시사용 제구, 성경, 성해, 제의, 성상 등 하느님께 봉헌된 물건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